

건강을 지키는 현장

홍기원

의료보수가 수준의 종합건강검사를 실시하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었으며, 그만큼 건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종합건강검사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한 것도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의료보수가 수준의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종합건강검사에 대하여, 서울지부 부속의원 내원자들이 검사를 받는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협회 각 시도지부 부속의원으로 하길 바란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상담 및 접수 - 건강에 관련된 궁금증 상담

협회 부속의원에 상근하는 의사선생님과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궁금증, 건강검사 종목 선택 등에 관해서 상담을 하며, 건강진단 기록부를 작성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검사 후 결과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을 마친 후 종합검사나 선택검사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다.

◦ 기초검사 - 비만도 등 기초체력 검사

혈압, 신장, 체중, 비만도, 시력 등의 건강검사에 필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여기서는 특히, 혈압측정을 통하여 고혈압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으며 비만도 측정을 통해 자신이 어느정도 뚱뚱한지, 혹은 허약한지를 알 수 있다.

◦ 체노·체혈·체변 - 건강검사의 가장 기본

이 세가지는 건강검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

소변검사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신장기능, 당뇨병을 비롯해 각종 비뇨기계통 질환 등이 그것이며, 임신반응 검사도 소변검사가 기본이다.

우리협회에서는 백혈구, 요잠혈 등을 비롯해 모두 11여 종목을 검사할 수 있다.

혈액은 우리 인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진대사를 위한 산소 및 영양소 공급, 노폐물 운반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만큼 신체내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건첩에서는 AST(GOT), ALT(GPT), 콜레스테롤 등을 비롯한 50여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간기능장애, 알콜성지방간, 빈혈,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췌장질환, 신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각종 염증성질환, 간염 등 약 40여종의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혈액검사를 통해 각종 성병 및 AIDS 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대변을 통해서도 소장 및 대장의 질환을 알아내기 위한 분잠

체노·체혈·
체변은
건강검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혈 검사나 각종 기생충 검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분장혈검사는 40~60대 사람의 대장암 발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

◦ 심음·심전도 검사 - 심장질환 등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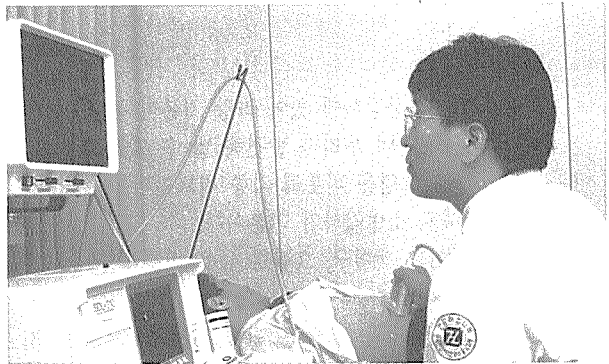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본검사 중의 한가지.

그래프 상에 나타나는 파장을 통하여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등 각종 심장질환의 경·중까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혈액을 통한 검사 결과와 함께 비교·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판독하게 된다.

◦ 초음파 검사 - 복부 내 장기의 이상 등 검사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담낭결석, 담석증, 췌장염, 신장암, 비장 질환 등의 유무를 파악하게 되며, 또한 장기의 모양이상이나 위하수 등 위치에 이상이 온 경우도 복부 초음파에서 발견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로는
복부 내 장기의
모양이나
위치의
이상을
비롯함
각종 질병을
발견해 낸다.



◦ 자궁암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혼여성이라면 누구나 년1~2회 자궁암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이다. 견협에서는 자가채취기법 및 면봉법을 통해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박약을 초래하는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중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단풍당뇨증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대사이상의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유아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건강을 지키는 현장

• X-RAY·위장조영촬영 - 폐질환, 위장질환 등 검사

이 검사들을 통해 각종 폐질환 및 심장질환, 위장질환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

특히 위장조영촬영은, 바륨용액 및 기포제를 마신 후 위장 내의 질병을 X선을 통해 알아내는 것으로, 정밀검사에 해당되는 내시경에 비해 검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위장검사에는 적격이다.

• 호흡기능검사 - 각종 호흡기질환 발견

입으로 숨을 들이 마시거나 내쉬는 방법으로 하는 검사로서, 폐기능 및 호흡기질환의 발견을 위해 실시된다.

• 판독과 결과통보 - 전산처리로 평생관리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은 의과대학등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상담은 협회 내에 상근하는 의사가 한다.

이렇게 판독된 결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평생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밀봉하여 우편·통보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진단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 이동건강검진버스 - 30인이상 단체면 이용 가능

협회 각 시도지부 부속의원에 있는 건강검진버스를 이용하여 30인 이상의 단체나 사업장, 산간·오지지역 주민에 대한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버스 내에는 몇가지 특수기자재를 제외하고는 부속의원과 동일한 서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지부에 내원·서신·전화 등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날 식사를 8~9시 이전에 하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검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며, 위장조영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공복 상태에서 오전중 내원해야 한다. ㉞

결과의 판독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하며, 검사결과는 전산처리되어 평생관리 한다.